신속하고 친절한 은행
동양저축은행
Tel.(062)226-0180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제17526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www.kwangju.co.kr 2006년 8월 15일 (음력 7월 22일) 화요일

*오늘 8·15… 일제 강제징용 생존자들의 증언*

## 일본군의 몽둥이질… 쏟아지는 소이탄

# 그곳은 '생지옥'이었다

일제 강점기에 일본으로 끌려간 한국인 강제징용자들에게 이국의 땅은 한 올의 희망도 보이지 않는 '생지옥'이었다. 〈관련기사 3면〉

18세 직후 젊은 나이에, 영문도 모르고 끌려간 일본에서 이들은 입을 것도, 먹을 것도 제대로 없이 돈 한푼 받지 못하고 칠흑 같은 절망을 헤쳐나가야 했다. 감옥 같은 탄광과 조선소에서, 소이탄이 난무하는 하늘 아래 일본군의 몽둥이를 피해가며 목숨을 걸고 짐승처럼 일을 해야 했다.

최근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들에게 영원히 잊히지 않을 당시의 기억을 직접 털어놓은 강제징용 생존자들은, 자신들을 사지로 끌고 간 일제를 증오하면서도 그나마 살아서 돌아올 수 있었다는 행운을 고마워 했다.

이들의 끔찍한 기억은 피해진상규명위원회가 최근 발간한 7백쪽 분량의 1차 자료집에 생생히 담겨 있다.

전남 여천군에서 태어나 18살 때 일본 규슈의 미츠비시 호죠 탄광으로 동원된 조용섭(81) 할아버지는 '영장'이 나왔다며 일본으로 가라는 구장(지금의 통장)의 말만 듣고 일본으로 끌려갔다.

발파작업을 하다 탄광 내에 설치된 레일에 걸려 다리가 크게 찢어졌으나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데다, 주린 배를 움켜쥐고 먼지를 뒤집어쓴 채 막장에서 목숨을 걸고 2년간 일을 했지만 돌려 보내주질 않자 작업장을 탈출했다. 품삯이라고 쥐꼬리만큼 준 돈은 '살기 위해' 먹고 상처 치료하는데 모두 써버렸다.

그러나 한국에 돌아와서도 일본에서 얻은 부상의 후유증으로 일을 하지 못하고 결국 고향을 등져야 했다. 조 할아버지는 "늙은 게 한"이라며 "(징용문제를) 나 죽기 전에 어떻게든 해결을 봐야한다"고 말했다.

조 할아버지는 "당시 징병이건 징용이건 일본에 끌려간 조선사람들 중 일본을 위해 죽은 사람은 단 한명도 없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조선인 희생자들을 야스쿠니 신사에 멋대로 합사 해놓고, 이들이 일본을 위해 죽은 사람들이라고 추모하는 것은 죽은 넋마저도 한에 맺히게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고흥군 도양면 출신인 장순배(82) 할아버지는 18살이 되던 해 나가사키 토야기 조선소로 동원됐다. 조선소에서 조금이나마 받은 월급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빈대떡을 사먹느라 다 써버리고 밀수선을 타고, 빈손으로 고국에 돌아왔다.

벼룩이 들끓는 숙소에서, 늘 굶주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로 지독스럽게 사람들을 팼던' 일본 헌병에게 거의 매일 기합을 받는 등 고통을 받았지만, 지금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피해를 입지 않고 돌아온 것만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박진형(80) 할아버지도 도쿄의 한 공작소로 동원됐다. 진도에서 태어나 중학교 2학년을 중퇴하고 독학을 하던 중 징용장을 받은 박 할아버지는 하루가 멀다하고 비처럼 떨어지는 소이탄을 피해 방공호에 숨었다가 맹독가스를 맡는 바람에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심한 기관지염을 얻었다.

'도망가 봤자 폭탄 맞아 죽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공작소가 폭격으로 무너지자 이곳저곳을 다니며 막일을 하다 해방을 맞았다.

'방공호에서 병신이 돼버렸다'는 박 할아버지는 "그래도 운 좋게 일본말을 할 줄 알아서 남들보다는 고생을 덜했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 밖에도 믿기 어려울 정도의 처참한 고난사가 강제동원 생존자들로부터 쏟아져 나오고있다"며 "대부분 고령인 이들이 생존해 있는 동안 한명이라도 더 많은 증언을 수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 "그나마 살아 돌아올 수 있어 행운"
### "日 위해 죽었다" 야스쿠니에 합사
### 조선인 희생자 넋마저 한 맺히게해

남부대학교
http://www.nambu.ac.kr
전남과학대학
http://www.chunnam-t.ac.kr

**"일본은 사죄하라"** 일본 군국주의 상징인 야스쿠니 신사에 무단합사된 한국과 대만, 일본의 희생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야스쿠니 반대 공동행동'에 참가한 일본군위안부 출신 이용수 할머니가 14일 오후, 도쿄 메이지공원에서 대형 천에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글을 쓰고 있다. 〈한겨레신문 제공〉

# 고이즈미 오늘 참배할 듯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일본 패망일인 8월 15일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할 움직임 이어서 한·중·일 3국간 긴장이 극에 달하고 있다. 〈관련기사 5면〉

14일 도쿄 외교가에는 "고이즈미 총리가 15일 오전 7시 일찍 신사참배를 끝낸다"는 설과 "천황과 동석하게 되는 전국 전몰자 추도식을 끝내고 오후에 간다"는 설이 교차하고있으며 참배를 중단할 것이라는 관측은 나오지 않고있다. 고이즈미 총리가 "공약은 지켜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도를 거듭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대사소환이라는 극약처방까지 검토하고있으며 한국도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강력한 항의를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새 憲裁소장 전효숙씨 내정

## 盧대통령 내일 공식발표…與野 '코드인사' 공방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후임에 전효숙(사진) 헌재 재판관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노무현 대통령은 빠르면 오는 16일 인사추천회의를 거쳐 후임 전 재판관의 소장 내정과 일부 교체되는 후임 재판관들을 공식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 재판관이 소장으로 지명돼 국회 인준과정을 통과할 경우 1988년 헌법재판소 설립후 최초의 여성 헌재 수장이 탄생하게 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현재 전 재판관이 유력한 것으로 안다. 다른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순천 출신인 전 재판관은 순천여고와 이대 법대를 졸업한 뒤 서울가정법원 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형사부장를 거쳐 지난 2003년 첫 여성 헌법재판관으로 발탁됐다.

그는 노 대통령과 사시 17회 동기로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심판에서 유일하게 '각하' 의견을 내 '코드 인사'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전 재판관의 개혁성과 헌정 사상 첫 여성 헌법재판소장 탄생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긍정적 반응을 보인 반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코드인사'라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통령 몫 후임 재판관으로는 민변 출신의 조용환 변호사(24회)가 급부상 중인 가운데 김희옥 법무차관(18회)과 홍경식 법무연수원장(18회) 등의 기용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후임 헌법재판관 중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공동 추천 몫으로는 목영준 법원행정처 차장(19회)이 유력하고, 한나라당 추천 몫으로는 이동흡 수원지법원장(15회), 강병섭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거론된다.

또 대법원장 추천 몫으로는 김종대 창원지법원장(17회), 이우근 서울중앙지방법원장(14회), 신영철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18회)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경기 이미 하강국면 진입"

## 삼성경제硏 비관론 내놔

올해 이미 국내 경기가 꺾인데 이어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관련기사 8면〉

삼성경제연구소의 홍순영 상무와 전영재 수석연구원은 최근 잇달아 이같은 전망을 내놓으며, 기존 전망치와 달라졌음을 보여줌은 물론 정부 정책 변화 필요성을 시사했다.

전 연구원은 14일 '경기사이클 축소의 원인과 해법'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경기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한국경제는 1·4분기 정점을 지나 완만한 하강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전기대비 경제성장률이 올해 1·4분기와 2·4분기에 각각 1.2%, 0.8%로 계속 낮아지고 있는 점, 계절조정 후 분기별 GDP 순환변동치 역시 지난 2·4분기에 기준치인 100 밑으로 떨어진 점 등을 근거로 경기가 꺾인 추세임을 설명했다.

그는 또 재고-출하 순환지표 역시 재고 증가속도가 빨라져 경기가 더 이상 확장되지 않고 있다는 근거도 제시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